

조선

해운업계를 강타할 강력한 태풍이 눈 앞에 왔다

2013. 6. 17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Triple-E, 엔진 사이즈 더 작아진다

“I name you Mærsk Mc-Kinney Møller,” “I wish you Godspeed!”

지난주 금요일 대우조선해양 옥포 야드에서는 18,000TEU급 Triple-E 1차선의 명명식이 있었다. 지난해, 당사 리서치센터는 18,000TEU급 Triple-E의 추진엔진 사양은 5만 마력 엔진 2개가 탑재될 것이며, 기존 15,500 TEU급 Emma Maersk에는 11만 마력 엔진이 탑재된 것과 여러 차례 비교했었다.

적재량을 늘리면서도 엔진 마력은 줄어들어 연료 소모량은 대폭 줄어든다. Triple-E의 추진엔진은 86,000마력(43,000*2)으로 기존 계획 10만 마력보다도 더 줄어들었다. 추진속도는 최대 23Knot로 당초 계획인 24Knot보다 감소되었다. 15,500TEU급 Emma Maersk의 추진 프로펠러는 9.6m길이 1개가 탑재되었지만, Triple-E는 Twin engine이므로 9.8m길이 2개가 탑재돼 추진효율은 더욱 개선된다.

Triple-E는 8,000TEU급 보다 연료 소모량은 50%가 줄어들며 15,500TEU급 Emma Maersk보다도 20% 가량 개선된다.

Triple-E는 수주계약 당시 계획보다 인도시점에서 연비가 더욱 개선된 것이다. 이는 건조를 담당한 조선소의 기술력이기도 하다. Triple-E는 전체 20척 이므로 마지막 호 선으로 갈수록 추진엔진의 사이즈와 마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해운업을 비롯한 전세계 어느 선박과 비교해도 Triple-E와 연비 경쟁에서 살아남을 선박은 없다. Triple-E가 운항에 투입된 이후 Maersk Line과 경쟁선사와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고선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이며, 운임 및 해운시황과 무관하게 Eco-ship 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전세계 해운업계는 Eco-ship에 의해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살아남은 소수의 선사들만이 시황회복의 수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해운업계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불어 닥치기 직전이며, 이 태풍은 곧 또 다른 수많은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전세계 해운관계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주목하고 있다

- Horsepower: 43,000 * 2

- Consumption: 168 grams bunker oil per Kilowatt hour produced

Triple-E 1차선은 6월 28일(덴마크 현지시간 기준)에 인도될 예정이며 아시아 - 유럽 노선에 투입될 것이다. 이 선박의 특징은 선체 크기의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추진시스템과 선형의 변화를 통해 연료 효율성을 대폭 개선시켰다는 것이다. 엔진은 조선소간 무차별하기 때문에 탑재 능력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선형의 변화와 프로펠러 등 추진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조선소간의 기술력 차이가 선박의 연비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동일한 엔진을 탑재한다 해도 한국 조선소 간 연비는 다르다.

전세계 해운관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연비가 우수한 Triple-E를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며, 선주들은 발주상담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